KB증권

2021년 10월 26일

Economist 오재영
02-6114-1668 jaeyoung.oh@kbfg.com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 Macro

한국 3분기 GDP: 4분기에는 소비와 투자 증가하며 성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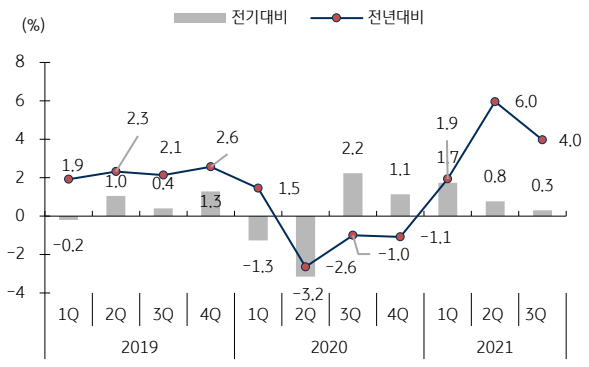
3분기 델타변이 확산과 물가부담으로 전기대비 0.3% 성장 기록하며 시장 예상 하회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를 기록해 KB증권 예상 (0.6%) 및 시장 예상 (블룸버그 0.6%)을 모두 하회했다. 이는 지난 2분기 (0.8%)보다 둔화되고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이다. 3분기 국내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그리고 올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병목현상, 물가부담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2분기에 전기비 감소했던 수출은 증가 전환했으나, 그 외 주요 지출항목인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입 등이 모두 전기대비 감소했다. 가장 예상 외의 부진을 보인 것은 건설투자다.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 (-2.3%)에 이어 3분기 (-3.0%)에도 큰 폭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부터 예상된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 연속 건설투자가 부진하며 올해 건설투자도 201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1년 -1.0% 예상). 3분기 설비투자도 전기대비 2.3% 감소해, 3개 분기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편, 델타변이 확산에도 민간소비는 예상보다는 견조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서비스소비 감소로 전기대비 0.3% 감소했는데, 이는 이전의 코로나 확산기 (2020년 1분기 민간소비 전기비 -6.6%, 4분기 -1.3%)와 비교하면 위축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 확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간 4% 달성은 어려워진듯 하나, 4분기는 민간소비 회복세와 투자 확대로 3분기보다 성장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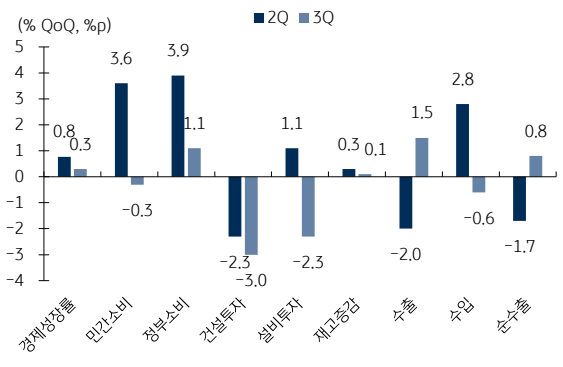
4분기 성장은 3분기보다 확대 (전기대비 0.8% 내외)되며 민간소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재개할 것이다. 4분기에는 70%를 상회하는 백신 접종완료 비율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차 추경 효과와 연말 소비 시즌에 힘입어 3분기에 일시적으로 위축된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건설투자도 4분기에는 일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정부의 토목건설 확대로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한편, 국제유가 및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과 중국 경기 둔화,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부담 요인은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내년 1분기 이후부터 생산 차질과 물가부담이 차츰 완화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연말까지 평균 전기비 0.9% 내외의 높은 수준 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 시행은 민간 소비의 상방 요인이 될 것이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도 경기회복을 도울 것이다. 이번 3분기 성장 예상 하회로 2021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4.0%에서 3.9%로 0.1%p 하향 조정하나, 2022년 성장률은 기존 2.9% 전망을 유지한다.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3분기 전기대비 0.3%, 전년대비 4.0%



자료: 한국은행, KB증권

지출항목별 전기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KB증권

주: 재고증감과 순수출은 전기대비 성장률 기여도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